

부활 주일 예배 순서

THE WORSHIP SERVICE OF EASTER SUNDAY

주후 2020년 4월 12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159장 “할렐루야 우리 예수” (새 161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62번 부활절 (Easter)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555장 “세번 아멘”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도 Prayer of Intercession		김재우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	이사야(Isaiah) 25:6-9	조상희 집사
영어 설교 English Sermon		Will Purushatham
한어 설교 Korean Sermon	“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” (He Will Swallow Up Death Forever)	김일선 목사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(특송: 윤홍준 집사, 반주: 고혜정 집사)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53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 317) 1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155장 “주님께 영광” (새 165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.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“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,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”

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,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.

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고,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,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.”

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,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소서.

그리하여,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, 매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고전 15:3-4)

오늘의 성경/말씀 TODAY'S SCRIPTURE

“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” (한글개역 사 25:8)

“He will swallow up death forever. The Sovereign LORD will wipe away the tears from all faces; he will remove the disgrace of his people from all the earth. The LORD has spoken.” (NIV Isaiah 25:8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4/12	4/13	4/14	4/15	4/16	4/17	4/18
	(주일)	(월)	(화)	(수)	(목)	(금)	(토)
	레17	레18	레19	레20	레21	레22	레23
본문	시21	시22	시23,24	시25	시26,27	시28,29	시30
	잠31	전1	전2	전3	전4	전5	전6
	딤후2	딤후3	딤후4	딤후5	딤후6	딤후1	딤후2

수/요/성/경/공/부

수요 성경공부 (4/15수 오후7:30)	“약한 말로 원망하매” (민11:1-9)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지난 주일(4/5) 말씀

“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” (히 6:13-20)

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에 집중되는 것이 ‘희망(希望)’이라면, ‘소망(所望)’은 믿음의 대상(하나님)을 향한 우리의 믿는 바가 투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“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,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”(히6:19-20)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, (우리는)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무엇인지?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반드시 실현하실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? 를 발견하게 되는데, 1)첫째,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‘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소망’이며(히6:14-15), 2)둘째,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, ‘소망은 큰 안위(위안)가 되며(히6:17-18), 3)셋째, ‘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’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(히6:19-20).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(바로) 소망의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

그리하여, 고통과 눈물과 염려가 잔뜩 드리워진 세상에서도, 우리의 참된 소망되신 하나님으로 인해,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메/모